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94호
 2026년 10월 26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윤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필라델피아에서 되새긴 세브란스 뿌리와 우정

**총동문회에 1만달러 기부 약속
 세브란스 미주동창상 제정
 1회 수상자에 신재일 교수
 총동문회 “미주동창이사
 선임 계획”**

제36차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 행사가 1일부터 나흘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북미주 거주 모교 동창들과 금기창 의료원장, 최재영 의대학장, 김장영 원주의대학장, 김문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오상호 의대 기획부학장을 비롯해 이재범 의대 총동문회장, 박형우 연세대 객원교수, 김문규 의대 총동문회 의료선교위원장, 김주영 의대 총동문회 역사문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첫날 이사회에서는 동창회 운영 현황과 장학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는 의

대 총동문회에 1만달러 기부를 약속하며 모교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이재범 회장과 박형우 객원교수, 김주영 역사문서위원장 등은 필라델피아 장로교역사연구소를 방문했다. 미국 장로교 사료와 제중원·세브란스 관련 기록을 직접 살펴보고 세브란스 뿌리와 기록 보존 중요성을 되새겼다. 둘째날 오전에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등을 둘러보는 시티투어와 골프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오후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금기창 의료원장을 시작으로 최재영 의대학장, 김장영 원주의대학장, 김문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모교와 의료원 현재와 미래를 소개했다. 이어 원주의대 예방의교수(생화학)의 ‘최초의 생화학자 이석신’ 기념강연과 서재필 기념 강연도 마련돼 세브란스와 한국 의학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가 처음으로 수여하는 세브란스 미주동창상을 의대 신재일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수상했다. 신 교수는 미주 동창회 후원을 통해 해외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수 업적을 발표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미국 진출과 정착을 희망하는 젊은 동문을 현지 선배들과 연결하고, 실질적인 정보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 현황도 공유했다. 학술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졸업 동기별 재상봉 행사가 이어졌다.

셋째날에는 시티 투어와 골프가 이어 진행됐다. 투어 참가자들은 서재필 선생 생가를 찾아 그의 삶과 활동, 생가 보존돼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룬우드 기도를 방문했다. 오후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이재범 회장이 총동문회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의과대학 신축 건물에 마련된 총동문회 사무국과 동문 라운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세란동문록 등을 통해 북미주 동창회 소식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발간될 동창회 100년 사에 북미주 동창회 역사와 활동을 충실히 담고, 동문들 삶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동문 아카이브’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회장은 고향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미주 동문 사회가 젊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는 멤버십 커미티 활동과 젊은 동문의 미국 진출·정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매년 모

교와 의료원 발전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는 북미주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를 위해 총동문회 내에 ‘미주동창이사’를 선임해 한국과 북미주 동문 사회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홈페이지와 동창회보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북미주 동문 소식과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양 동문회 유대와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술 일정 후에는 갈라 디너가 열렸다. 만찬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며 졸업 연도와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11월 ‘의료선교의 달’ 사랑과 나눔 실천

**‘국경은 NO, 사랑은 GO’ 주제
 의료선교 정신 되새겨
 기도회·특강·포럼 등 진행**

의료원이 11월, ‘의료선교의 달’을 맞아 의료선교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과 섬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의료선교의 달 대주제는 ‘국경은 NO, 사랑은 GO, 표어는 ‘선을 넘는 용기, 생명을 살리는 온기’로 신촌 지역과 강남, 용인에서 한 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의료선교의 달은 국경과 문화, 환경 차이를 넘어 생명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해 온 세브란스 의료선교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선교사와 의료진, 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와 특강, 문화행사, 포럼 등을 통해 의료선교 역사와 가치를 공유한다.

의료선교의 달 행사는 다음달 2일 세브란스병원 6층 예배실에서 열리는 ‘선교기도회’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재활병원 정동균 물리치료가 강사로 나서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신앙과 섬김 의미를 교직원들과 나눈다.

해외 의료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

기를 들을 수 있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교직원 예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4일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하는 이성종 선교사(치대 04년 졸), 11일에는 A국에서 활동하는 문주수 선교사(의대 97년 졸)가 교직원들과 만난다. 25일에는 제6회 에비슨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된 몽골 돌람수렌 다미란(Dulamsuren Daniran)이 강사로 나서며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6일 간호대학 자유관에서는 장순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나의 인생 삼모작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간호 선교 Brown Bag 특강’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은명대강당에서 간호국 신앙 부흥 집회가 열린다.

같은달 10일에는 의대 김예준 학생이 강사로 참여하는 ‘학생의 날’ 행사가 열리며, 16일에는 은명대강당에서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인 배덕만 교수를 초청해 ‘세브란스 기독교인의 날’을 개최한다. 25일에는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로비에서 교수성장단 발표회가 열린다.

의료선교 가치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11월 21일 원주연세의료원에서는 고신대학교북

음병원, 광주기독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샘병원, 예수병원, 원주연세의료원, 이화의료원과 함께 ‘Mission-Talk’을 연다. 의료선교 경험과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선교와 섬김 의미를 논의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11월 11일 이승권 필리핀 선교사를 초청해 교직원 신앙강좌를 진행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10월 24일 제5회 용인시 찬양 축제를 시작으로 28일 수요 교직원 채플, 11월 14일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탐방 등을 진행한다. 양화진 탐방에서는 세브란스의 설립 정신과 의료선교 역사를 되새긴다.

연세대학교에서도 11월 26일 루스체플에서 제4회 선교의 날이 열린다. 정용한 교목실장이 강사로 참여해 대학구성원들과 선교 의미를 나눈다.

의료선교의 달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릉에서 ‘에비슨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 열린다. 에비슨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와 에비슨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연수자들이 참여해 국가와 지역을 넘어 이어지는 의료선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원, 네팔 정부·병원에 홍수 피해 성금 1.8억원 전달

**의료원·노사공익기금·원목실 한금·의료선교센터 특별구호금
 네팔과 의사 연수 통한 의료협력에 이어 인도적 지원까지**



의료원이 네팔 수재민 피해 복구와 긴급구호를 위해 성금 약 1억 8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네팔 정부와 카트만두 아난다반(Anandaban) 병원에 나눠 보내진다.

의료원은 13일 의료원장 회의실에서 염준섭 제중원보건개발원장과 양인철 원목실장, 박진용 의료선교센터 소장, 이학선 사무부처장 등 의료원 관계자와 제임 아다카리 주한 네팔 대사관 2등 서기관, 화상회의로 참석한 칼렙 부다 아난다반 병원 의료서비스국장과 함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금은 의료원 예산 1억원, 노사공익기금 5000만원, 원목실 추수감사헌금

및 의료선교센터 특별구호 후원금 약 3000만원 등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지난 8월 대홍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현지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다.

아난다반병원 의료서비스국장인 칼렙 부다는 2017년 의료원에서 연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칼렙 부다 의료서비스국장은 2022년 제2회 에비슨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한 이력이 있다. 이 상은 세브란스병원 초대 병원장이자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비슨 박사의 이웃 섬김 정신을 기리는 상이다.

난임 치료 주사 부담 줄이는 ‘마이크로니들’ 개발



한 번 삽입해 두 호르몬 순차 주입

의대 성학준·조성우·유승은(의학공학), 최영식(산부인과학) 교수와 김현재 학생 연구팀은 한 번 피부에 삽입하면 두 종류 생식호르몬을 필요한 시점에 주입할 수 있는 형상기억 마

이크로니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9)’에 게재됐다. 난임 치료를 위한 과배란 유도 과정에서 난포 성장을 촉진하는 난포자극호르몬(FSH)과 배란을 유도

하는 인간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hCG) 등을 정해진 일정과 용량에 따라 투여한다. 대부분 피하주사로 투여하기 때문에 반복 투여에 따른 통증과 불편함이 발생하고, 환자가 정해진 투여 시점을 지켜야 하는 부담도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에 따라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형상기억고분자를 이용해 약물 방출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을 개발했다.

마이크로니들 내부 서로 다른 공간에 FSH와 hCG를 각각 넣었다. 한 번 피부에 삽입하면 먼저 FSH가 3일 동안 서서히 방출된다. 이후 원하는 시점에 핫팩 수준의 온열 자극을 가하면 마이크로니들이 내부에 있던 hCG를 방출한다. 마이크로니들 하나에서 호르몬 두 종류를 시간차를 두고 서로 다른 속도로 주입한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피부 침투와 약물 탑재에 적합하도록 마이크로니들 구조도 최적화했다. 이어 세포·조직 실험을 통해 온도에 따른 형상 변화가 약물 방출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마이크로니들을 한 번 삽입해 FSH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뒤 정해진 시점에 온열 자극을 가해 hCG를 빠르게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 반복적으로 호르몬을 주사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완화하면서도 기존 주사요법과 유사한 배란 유도 효과를 나타냈다.

성학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마이크로니들의 형상 변화를 이용해 필요한 시점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며 “향후 반복 주사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이고, 여러 약물을 순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다양한 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원 ‘의료AI 혁신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의료원은 2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26 의료AI 혁신사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의료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 ‘AX(AI Transformation)’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초 ‘2026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을 실제 현장 문제 해결로 연결하고, 교직원들이 직접 만들어낸 혁신 사례를 의료원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17개 팀이 간호사 근무표 작성, 보험심사 안내, 예산·경영분석까지 교직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는 문제를 AI로 해결한 다양한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대상은 재활병원 진료부 간호팀 이은석 파트장과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행정교육팀 윤수현·박상우 간호사가 개발한 ‘간호업무 Q&A Agent’가 차지했다. 간호사가 업무 중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직접 찾아보거

나 전화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최우수상에는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행정교육팀 양인애·신상희·정주희 간호사, 간호부원장실 최규연 간호사가 개발한 ‘AI 간호사 근무표(SevDuty)’가 선정됐다. 근무 패턴 조회와 근무 신청, 승인·반영 결과 등을 관리해 확정 근무표를 생성한다. 우수상에는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보험심사팀 김혜영 간호사가 개발한 ‘보험심사 안내 AI Agent’와 기획조정실 경영분석팀 김윤철·박형준, 강남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 기획예산팀 김근만 사무원이 개발한 ‘AHP 연계 Quick-in 예산·분석 AI 경영관리’가 선정됐다.

의료원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AI 개발을 일부 전문인력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현장 교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문제를 찾아 AI를 활용해 직접 해결하는 ‘시민 개발자(Citizen Developer)’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BIKO 구축 사업 중심으로

세브란스병원은 15일 은명대강당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BIKO) 구축사업 참여대상 확대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의대 윤진하 교수(예방의학) 등 의료원 관계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백룡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단장,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가AI전략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신약, 의료기기 개발 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전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국가 플랫폼 기반 마련 작업이다.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혈액, 소변 등 검체를 확

보해 범부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데이터 기증 가능 대상이 건강검진 수검자로 제한했던 기존 기준을 전 국민으로 완화해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임준석 디지털헬스실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AI 발전 방향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하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국 참여 병원 약 50곳 중 세브란스병원에서 대상자 확대를 알리고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은경 장관이 채혈과 신체 계측 등 절차를 거쳐 바이오 데이터를 기증했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세브란스병원이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대, 스탠포드-엘스비어 세계 상위 2% 연구자 8명 등재

지난해 대비 3명 증가 국제적 연구 경쟁력 입증

간호대학이 스탠포드-엘스비어 세계 상위 2%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에 교원 8명을 등재하며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엘스비어 데이터 저장소에서 공개한 ‘표준화된 인용 지표를 활용한 전 세계 과학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간호대는 최근 1년간 연구영향력을 평가하

는 단일 연도 기준에서 교수 8명이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5명이 선정됐던 간호대는 올해 8명이 추가됐다. 전체 교수 27명 중 약 30%에 해당한다. 명단에는 간호대 오의금·이태화·조은희·이주희·최모나·이지연·김희정·이승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오의금 교수는 전체 연구 경력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생애 업적 분야에서도 세계 상위 2% 명단에 들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Scopus 저자 프로필을 기반으로 인용 횟수, H-지수, 공동저자 및 저자 위치 등을 반영한 종합지표와 분야별 백분위 등을 활용해 연구 학술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8월 1일 Scopus 데이터 기준을 하며, 생애 업적지표는 2025년까지 연구성과를, 단일 연도 지표는 2025년 한 해 동안 피인용 실적을 반영한다.

간호대는 이번 성과를 통해 교수진



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국제 학술적 영향력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과 국제적 연구

협력을 확대해 간호학 분야 학술 발전과 연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루이소체치매, 두 가지 진행 유형 확인

**아밀로이드 축적 먼저 유형
도파민 결핍 먼저 유형
각 유형 따라 증상·뇌영상 차이**

의대 정석종(신경과학), 박찬욱(생리학) 교수 연구팀은 루이소체치매가 아밀로이드 축적과 도파민 신경계 퇴행 중 무엇이 먼저 나타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진행 유형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브레

인(Brain, IF 126)'에 게재됐다. 루이소체치매 환자 뇌에서는 기저핵 도파민 결핍, 대뇌 기능 저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등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떤 순서로 발생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루이소체치매 환자 83명의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과 도파민 운송체 PET 영상에서 아밀로이드 축적, 뇌관류, 기저핵 도파

민 결핍 정도를 분석했다. 이어 AI 분석기법을 활용해 이러한 뇌 변화가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 진행 경로를 추정했다.

루이소체치매 진행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첫 번째 유형은 아밀로이드 축적이 먼저 나타난 뒤 뇌관류가 감소하고 기저핵 도파민 결핍이 이어지는 경로였다. 두 번째 유형은 기저핵 도파민 결핍이 먼저 발생한 뒤 뇌관류 저하와 아밀로이드 축적이

뒤따르는 경로였다.

두 유형은 질병 진행 순서뿐 아니라 임상 증상과 뇌영상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밀로이드 축적이 먼저 시작된 환자군은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형태의 뇌 위축과 높은 아밀로이드 축적을 보였다. 반면 도파민 결핍이 먼저 시작된 환자군에서는 램수면행동 장애와 환시가 더 흔했으며, 특히 뇌 특정 영역이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루이소체치매 전형적인 영상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 석 종



박 찬 욱

정석종 교수는 "환자마다 다른 증상과 진행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와 임상시험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소암·위암에서 차세대 CAR-T 치료 가능성 확인



정 민 규

의대 정민규·김건민(내과학), 남은지(산부인과학), 박은향(병리학) 교수 연구팀은 난소암과 위암에서 발현되



김 건 민

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CAR-T 세포치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남 은 지



박 은 향

포 이뮤노테라피 오브 캔서(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 IF 11.7)에 게재됐다. CAR-T 치료는 혈액암 치료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난소암이나 위암 같은 고형암은 적절한 표적 찾기와 더불어 CAR-T세포가 종양 내부로 침투하기 어려워 치료제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굴하기 위해 환자 종양을 분석했다. 연세암병원 난소암 환자 227명과 위암 환자 132명의 종양조직을 조사한 결과, 난소암 환자 약 37%, 위암은 22%에서 LICAM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됐다. LICAM 발현 수준이 높은 난소암 환자는 발현이 낮은 환자보다 전체생존기간이 짧았다.

이러한 LICAM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CAR-T 세포를 제작했다. T세포를 활성화하는 CD28과 ICOS 자극 인자를 결합해 CAR-T 항암 효과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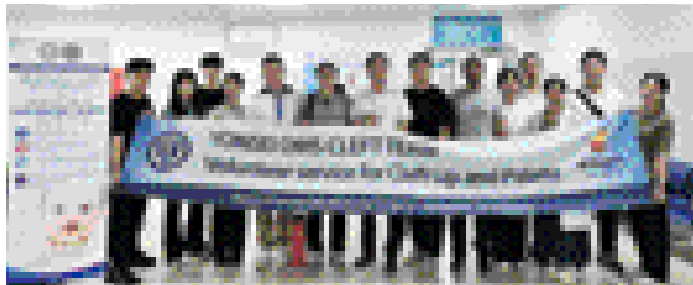
이러한 LICAM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CAR-T 세포를 제작했다. T세포를 활성화하는 CD28과 ICOS 자극 인자를 결합해 CAR-T 항암 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LICAM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CAR-T 세포를 제작했다. T세포를 활성화하는 CD28과 ICOS 자극 인자를 결합해 CAR-T 항암 효과를 높였다.

개발한 CAR-T는 LICAM이 발현된 난소암과 위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했으며, 실제 난소암 환자에게서 얻은 암세포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실제 환자 종양을 동물에 이식한 난소암 모델에서는 CAR-T를 낮은 용량으로 한 차례 투여한 뒤 종양이 완전히 소실됐다. 위암 동물모델에서도 종양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막 전이가 흔한 난소암 특성을 고려해 CAR-T를 복강에 직접 투여했을 때는 정맥 투여보다 종양 억제 효과가 높았으며 CAR-T 세포도 더 오래 유지됐다.

치대, 베트남 다낭 의료봉사 성료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봉사단이 11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다낭 여성·아동병원(Da Nang Hospital for Women and Children)에서 구순구개열을 비롯한 구강악안면외과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수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정영수 치대학장이 비롯해 치대 정승원(응급 구강악안면외과), 박진후·이환규(구강악안면외과), 원주치대 조현미(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치대병원 임경민 교수, 알라야니 임상강사, 양술빈·김민규·김보경·김태호 레지던트, 이현진·이새롬 간호사가 참여했다.

봉사단은 활동 기간 동안 총 23명을 진료했으며, 구순구개열 및 치조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11명에게 수술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다낭에서 편도로 약 이틀이 소요되는 먼 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2개월 영아 수술이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해당 환아

는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의료기관까지 거리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영수 치대학장이 구순 및 비부 일차교정술(primary lip and nose repair)을 시행했으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봉사단은 향후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환아 수술 후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성장과 발달 상태에 따라 구개열 수술을 비롯한 추가적인 평가와 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수술에 그치지 않고, 환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치대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베트남에서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은 2004년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하며 현지 환자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및 수술을 제공해오고 있다.

의대, 말라야 의대와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의과대학이 최근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Universiti Malaya) 의과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202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말라야대학교 의과대학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나흘 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교 학생들이 서로의 의학교육과 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연구 경험과 주요 의료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캠퍼스 투어에 이어 의대 임상술기센터에서 기관삽관술

교육과 시설 투어에 참여하고, 의사과학자 진로와 연구 활동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병원 역사와 주요 진료·연구 시설을 둘러봤으며, 학생 연구 세션을 통해 양교 교육과 연구 경험을 공유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의료 환경을 비교하고 의료 AI 규제, 원격의료, 의료 관련 SNS 리터러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소그룹 토의에서는 양교 의대생들이 교육과 임상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전공 탐구와 진로 탐색까지...간호대 2026 선우제

간호대학은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간호대와 국제캠퍼스에서 제63대 간호대 학생회 주관으로 '2026학년도 선우제'를 개최했다.

올해 선우제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더 낫게 한다'를 콘셉트로, 학생들이 연세간호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연구 논문을 소재로 한 퀴즈, 스탬프 투어 등 간호학 특색을 살린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연세간호 120주년을 맞아 심박수를

120bpm에 가깝게 맞추는 프로그램과 1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선우제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 진로 탐색을 위한 연사 초청 프로그램 '선우인의 밤'도 마련됐다. 17일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신혜정 연사가 강연에 나섰으며, 18일에는 남극간호사 김희수 연사와 간호대 안수혁 조교가 학생들을 만났다. 서로 다른 분야에



서 경험을 쌓아온 연사들은 진로 선택 과정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간호학을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와 가능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큐베이터에서 운동장으로...이른둥이 힘찬 질주

1.5kg 미만 이른둥이들 달리기 · 줄다리기도 거뜰 NICU가 지켜낸 가족의 행복

1.5kg 미만 ‘극소저체중 미숙아’로 세상에 나왔던 아이들이 모여 운동회를 했다.

17일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 예체능관. 엄마, 아빠 손을 잡아달기며 등장해, 간호사 언니, 누나들과 장난치던 아이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생사기로 선 채 의료진 치료를 받았다.

아날 모인 아이들에게는 ‘이른둥이’마저 과분한 표현이었다. 주로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이른둥이로 부른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보다 수주 앞서 작은 수박 한 통보다도 가벼운 1.5kg 미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4살 시온, 하온이 엄마 문예슬씨에게도 아날은 특별했다. 예술씨는 임신 7개월(27주 3일) 만에 세쌍둥이를 낳았다. 가장 작은 아이는 580g. 폐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고 빠른 힘도 약해 콧줄로 식이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그만큼 아이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두 아이는 고압계도 계속 힘을 내줬다. 시온이, 하온이는 NICU에서 5개월간 치료받은 뒤 건강하게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갔다. 이후엔 신생아과 주치의와 만나며 필요한 치료를 이어갔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예술 씨는 “NICU 담당 교수님이 매일 전화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라며 “교수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매일 안심하고

잘 수 있었어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시온이, 하온이가 구강 재활을 통해 콧줄을 빼고 과자를 집어 먹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라고 했다.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어려웠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어린이집 발표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기적 같았다며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던 장면부터 그간 성장 과정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시온이, 하온이 처럼 이른둥이는 폐와 소화기관 등 여러 장기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 숨을 쉬거나 젖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뇌출혈, 장폐색 등 합병증 위험도 커 세심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NICU는 이러한 합병증을 최대한 예방하면서, 이른둥이가 스스로 호흡하



고 영양을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집중 치료한다.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도록 의료진이 수주 동안 키우는 과정인 셈이다. 퇴원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최소 몇 년간은 아이 성장과 발달을 살피고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반드시 이어 나가야 한다.

특히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NICU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이른둥이들도 전국에서 몰려든다. 6살 주원이는 이른둥이로 태어나 오랜 기간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간모세포종으로 항암 치료도 받았다. 어린이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현재는 기저질환 관리만 하며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장 의대 은호선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이 아픈 것이 혹시 내 탓은 아닐까하며 자책하는 부모님 마음을 치료 현장에서 매일 마주한다”며 “의료진을 믿어주는 부모님들과 함께 힘을 내주는 아이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장기이식 최신 연구·진료 성과 공유

장기이식 최신연구 생체공여자 종합적 관리 다뤘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와 의대 장기이식연구소가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16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2026 장기이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이식 분야 기초과학 최신 연구부터 진단 기술의 새로운 지평, 생체 공여자의 통합적 관

리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이식센터장 의대 허규하 교수(외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장이식 기초연구 최신 성과를 살폈다. 의대 양재석 교수(내과)는 ABO 혈액형 부적합 이식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임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의대 주동진 교수(외과)가 우리 의대 장기이식연구소 연구 성과를 다루며 이식 연구 발전 방향을 논의했

다. 의대 이주한 교수(외과)는 발리루빈 나노입자를 이용한 허혈-재관류 손상 억제 효과에 대해 나눴다.

의대 김범석 교수(내과)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장이식 진단의 새로운 흐름을 조망했다. 울산의대 권현욱, 가톨릭의대 정병하 교수 등이 AI 기반 예측 모델과 정밀 의료 활용 가능성과 조직검사를 넘어선 이식 신장의 비침습적 모니터링을 각각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은 의대 김명수 교수(외과)가 좌장을 맡아 생체 신장 공여자 선별부터 장기 추적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뤘다. 서울의대 강은정 교수는 생체 신장 공여자의 수술적 관리와 수술 전후 관리 기법을 발표했다. 이어 의대 김현정 교수(외과)는 생체 신장 공여자 대상 수술 기법

과 수술 전후 관리를, 의대 정선재 교수(예방의학)는 생체 신장 공여자 심리사회적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전향적 관점을 나눴다.

장기이식센터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초연구와 임상 진료를 연결하는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장기이식 분야 연구 협력을 확대했다.

용인, ‘한 조각 나눔 캠페인’ 개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달 1일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2026 한 조각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알리고 나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 기간 병원 곳곳에 서는 혈액 나눔, 지역 주민 초청 치료, 상생마켓, 지역 방문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1층 로비에는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교직원 1% 나눔 기금·사회사업후원금, 나눔 릴레이 후원 활동(미래를 캠페인),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용세사돈클럽)을 소개하며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다양한 복지 관련 특강도 마련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나눔 의미를 되새겼다. 7일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일



기부자 대상 복지특강, 18일 공영장례 세미나를 잇따라 열었다.

17일에는 1층 로비에서 지역 기업 드림스펙트럼 재능기부 ‘순간포착! 빛나는 우리’ 즉석 사진 이벤트를 열었다. 교직원과 내원객은 준비된 포토부스에서 소품을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겼다.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지역주민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섬김과 나눔 가치를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 세계 표준의 날’ 대통령 표창에 한태화 교수



의대 뇌심혈관질환연구센터 한태화 교수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세계 표준의 날을 개최하면서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한 교수는 의료 AI와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은주 교수, 국내 최초 ‘국제 장초음파 전문가’ 자격



의대 이은주 교수(소아청소년과)가 국내 최초로 국제 장초음파 전문가 자격인 ‘IBUS-XP Masterclass’ 인증을 취득했다.

이 교수는 지난 달 1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IBUS-XP Masterclass에 선발돼 이론시험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초음파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IBUS(International Bowel Ultrasound Group)는 염증성장질환 분야에서 장초음파 교육과 표준화를 이끄는 국제 단체다. 이번 IBUS-XP Masterclass는 숙련된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300건 이상 장초음파 검사 경험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서류심사를 거친 뒤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실기시험에서는 심사위원 앞에서 실제 환자에게 장초음파를 직접 시행하며 평가받는다.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에스앤에스랩 바이오헬스 창업 생태계 조성 맞손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가 에스앤에스랩과 바이오헬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에스앤에스랩 구로 공유실험실에서 송영구 바이오헬스 기술지주 대표이사와 정일두 에스앤에스랩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에스앤에스랩은 성수와 구로에 총 850평 규모 실험 인프라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민간 공유실험실 기업이다. 70여종 250여대 연구장비를 24시간 제공하고 LMO 신고와 폐기물 처리, 안전관리 등 실험실 운영을 대행하며, 초기 기업이 시설 투자 대신 연구개발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 핵심은 임상 현장에서 출발한 기술이 학교 밖에서 성장 경로를 이어가는 ‘Clinic to Lab’구조다. 의료원 교수진이 임상에서 확인한 미충족 수요를 기술로 만들면,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가 의료원 핵심 전문가(KOL) 검증과 임상·인허가 연계, 에스앤에스랩이 실험 공간과 장비와 사업화·투자 연계를 맡는다.

양 기관은 ▲유망 기업·기술의 공동 발굴과 육성 ▲포트폴리오 기업과 교수창업기업 연구공간 입주 및 사업화 지원 ▲의료원KOL 기술검증과 임상·인허가 네트워크 연계 ▲공동 보육과 액셀러레이팅, 오픈이노베이션 운영 ▲국내외 투자자 연계와 공동 투자, 투자조합 결성 ▲정부·지자체 연계 사업 공동 추진과 글로벌IR 지원에 협력한다.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의료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질환별·모달리티별KOL 풀을 통해 기술 타당성과 의료



현장 적합성을 검증한다. 여기에 임상 시험센터와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인허가컨설팅자회사, 건강보험 수가·약가 산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네트워크를 연계해 규제 산업 핵심 관문을 지원한다.

강남, ‘간편한 한 끼 식사’ 시연회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은 14일 영양의 날을 맞아 병원 2동 지하 1층 홀에서 영양불량 환자를 위한 ‘간편한 한 끼 식사’ 메뉴 시연회를 개최했다.

영양불량 위험에 노출된 환자 식사 섭취를 돕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별 증상과 섭취 능력에 맞춰 맞춤형 메뉴 13종을 선보였다.



구내염 등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단호박 두부 스프, 향산화 치킨 스프 등 부드러운 질감으로 목넘김이 쉬운 메뉴와 고단백 분말로 열량과 단백질을 높인 비타 그린 주스, 순두부 푸딩 등 메뉴가 소개됐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오심과 구토로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담백하고 향이 강하지 않은 애플 피터 샌드위치, 소고기 채소말이 등 일품메뉴도 개발했다.

최근 의료질 향상 활동으로 개발한 간식 메뉴

중 비타 그린 주스와 비삭 두부나쥬 & 토마토 소스 시식 코너도 운영됐다. 추첨을 통해 시식 참여자 50명에게 순두부 푸딩을 증정했다.

행사장에서는 콘셉트별 레시피 동영상도 상영됐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조리할 수 있도록 미니 레시피 카드를 배부했다. 시식 메뉴 선호도 투표와 더불어 항암 치료 시 도움이 된 음식이나 식사 관련 제안 등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도 함께 운영했다.

강남, 선한 사마리아인 기금 전달식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3일 병원 대강당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무연고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원 후원 사업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시 의료원과 발맞춰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 청운교회, 기쁜소식교회, 하늘씨앗교회, 서울연합감리교회 등 병원 인근 4개 교회가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전달식은 서울연합감리교회 성도 지원으로 이뤄졌다.

성도들은 2021년부터 매년 사순절 기간 금식을 통해 아낀 식사비를 기부해왔으며, 2023년부

터는 ‘선한 사마리아인 기금’으로 뜻을 모아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사순절 금식에 동참한 성도들은 약 1312만원을 전달하며, 총 6427만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응급 환자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기금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은 누적 환자 수는 총 86명이다.

강남, 2026 하반기 매봉산 둘레길 걷기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2026 하반기 매봉산 둘레길 걷기 행사를 10월 한달간 진행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교직원 건강을 챙기고, 부서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가을부터 매년 매봉산 둘레길 걷기 프로젝트를 개최해왔다.

행사는 교직원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리프레시’ 콘셉트로 구성됐다. 일일 출석, 완주

및 주간 보너스 포인트 등을 모은 참여자에게는 국립오페라단 공연 티켓,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영화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

9일부터 31일까지 총 23일간 이뤄지며 매봉산 둘레길 곳곳 12개 거점을 방문한 뒤 쿼알 코드를 스캔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병원, 제2회 임상진료 공로상

의대 고아라·최향영 교수 수상

어린이병원이 15일 돌모루회의실에서 제2회 임상진료 공로상 시상식을 열었다.

소아신경과 분야 의대 고아라 교수(소아청소년과)와 소아정신과 분야 의대 최향영 교수(정신과학)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

고 교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진료와 뇌전증 수술, 정밀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또 당직과 응급진료 등 중증 소아환자 진료에 보인 적극성이 동료 의료진에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최 교수는 고위험·중증 소아청소년 정신질환과 신경발달질환 환자 진료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에 더해 입원치료 활성화 등 진료성과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 이은 임상진료 공로상 수상은 준오혜어 후원 기금을 재원으로, 어린이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 국제라이온스협회와 MOU

취약계층 환자 지원 도서 공간 운영 협력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4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3지역(이하 라이온스클럽)과 취약계층 환자 지원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1부원장과 라이온스클럽 임갑순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 지원에 협력한다. 라이온스클럽은 지역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고, 병원은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월, 기금 및 물품 기부,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은 2020년 체결한 외래

도서 공간 운영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병원 1층에 마련된 ‘Y Book Center’ 운영을 이어간다. 또 한 매년 도서 기증 캠페인과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라이온스클럽은 도서 공간 운영을 위해 2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



으며, 누적 기부금액은 3200만원에 달한다.

홍용우 동문 2억 5000만원

의대 신축기부금 (5020프로젝트)

홍용우 동문(의대 73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으로 2억 5000만원을 약정하고 1억원을 먼저 전했다.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홍용우 동문과 장철호 마취통증의학교실 주임교수, 김진아 발전기금사무국장, 의대 광영란 교수(마취통증의학) 등이 참석했다.

홍용우 동문은 “의과대학 신축이라는 큰 과업과 함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 교수들을 독려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신축 의과대학 내 마취통증의학교실의 성공적



인 역사관 건립을 소망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발전기금사무국장은 “모교를 위해 뜻깊은 후원금을 전해주신 홍용우 선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지아이엠시스템 김장순 대표 송은영 부사장 2억원

연세-송당 암연구기부금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지아이엠시스템 김장순 대표와 송은영 부사장이 최근 의과대학 연세-송당 암연구기부금 1억원과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을 후원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장순 대표, 송은영 부사장과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라선영 송당암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장순 대표는 “세브란스에서 가족 치료 과정을 함께 겪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고, 라선영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수술



실 천장에 새겨진 이사가 말씀처럼 병원을 찾는 암환자분이 치료 과정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소중한 마음으로 암 연구와 환자들을 위한 나눔을 베풀어주신 대표님과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두 분의 귀한 뜻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이 밝은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만석 태건비에프 대표 1억 8000만원

간호대학 장학기부금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재활병원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세브란스 간호국 발전기부금

김만석 ㈜태건비에프 대표가 최근 1억 8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간호대학 장학기부금 50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5000만원, 재활병원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5000만원, 세브란스 간호국 발전기부금 3000만원으로 이뤄졌다.

김만석 대표는 “올해에도 임직원들과 함께 열심

히 일한 성과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항상 환자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간호사, 사회사업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간호대학 학생들이 훌륭한 간호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The Great Future 캠페인 미래발전위원회 김만석 대표는 누적 15억 8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했다.



이용택 동성식품 대표 1억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건축기부금 간호국 발전기부금

이용택 동성식품 대표가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건축기부금 및 간호국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회사 임직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무사히 암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며, 환자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의료진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질 높



은 의료 혜택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종선 친선고속 회장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이종선 친선고속(주) 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액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진료, 연구, 환경개선 등 병원 발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종선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세심한 진료에 항상 감사하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선 회장 누적 기부액은 2억원에 이르렀다.

연세대 문영명 명예교수 1억원

의대 내과학교실 세브란스병원 간센터 발전기부금

문영명 연세대 명예교수(의대 67년 졸)가 최근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5000만원, 세브란스 간센터 발전기부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문영명 명예교수는 “후배들이 내과학교실과

간센터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영명 명예교수는 1998년 후원을 시작해 새병원 건축기부금, 의과대학 발전기부금,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등 꾸준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 3000만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최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으로 3000만원을 전했다.

허윤홍 대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연세의료원의 위대한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고자 한다”며 뜻깊은 후원금을 보냈다.

한편, 허윤홍 대표는 2024년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1000만원, 2025년 의료원 발전기부금 3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7000만원을 전했다.



오재욱 후원자 3000만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오재욱 후원자가 최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오재욱 후원자는 “환자들이 치료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편안한 케어를 받을 수 있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기부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오재욱 후원자는 2024년에도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을 전한 바 있다.

한원곤 동문 3000만원

의대 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세도회)

한원곤 동문(의대 76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세도회)로 3000만원을 전했다.

한원곤 동문은 “졸업 50주년을 맞이해 이번 후원이 외과학교실의 지속적인 발전에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세도회가 앞으로도 동문들이 서로 뜻을 나누고 모교와 후배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원곤 동문 누적 후원금 5000만원을 넘어서었다.

재외 동창 기부

재외 동창들의 기부 소식은 미주동창회와 UB(United Board)를 통해 전달되는 기부금으로 별도 코너를 마련해 소개합니다.

의과대학

- 고 김태홍, 김정희 미주동창(의대 60년 졸) 신축기부금 \$350000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고 | 박진웅 의료선교센터 소장

한 명이 전부일 때:르완다에서 날아온 기쁜 소식



며칠 전 르완다 보건부 관계자와 키갈리 대학부속 교육병원으로부터 감사인사와 함께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몇 년 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고홍 교수에게 소아소화기 연수를 받고 돌아간 가스파드(Dr. Gaspard)의 이야기다.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길이 6cm의 양끝이 날카로운 금속 드라이버를 삼

킨 사건이었다. 다섯살 된 언니가 아기 손에 쥐여준 드라이버를 아기가 그만 삼켜버린 것이다. 놀란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가 X-ray를 촬영한 결과, 드라이버가 위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됐고 아기는 곧바로 키갈리 대학부속 교육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스파드는 현재 르완다에서 소아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소아과 의사이며, 2015년 에비슨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게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다. 여섯 명으로 구성된 내시경 팀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길이 6cm의 금속 드라이버를 위와 식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꺼낼 수

있을까. 더구나 드라이버를 단단히 잡아 고정할 수 있는 적절한 내시경 기구도 없었다. 의료진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응용하기로 했다. 다행히 드라이버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고 그 부분을 이용해 드라이버를 잡아 안전하게 꺼낼 수 있었다. 개복수술 없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연세의료원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350명이 상의 의료인을 초청해 교육해 오고있

다. 그중 한 사람이 가스파드였다. 한 사람의 의사를 초청해 교육하고, 그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돕는 일.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 없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소식은 그 평범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한 사람의 교육이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병원과 지역사회로 이어져 마침내 한 어린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이다. 더구나 적절한 기구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의료진이 함께 고민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은 더욱 뜻깊었다.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숫자와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그

것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한 사람을 교육하는 일이 한 나라의 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한다. 숫자로 보면 그저 한명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그 한명이 전부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의사 손을 통해 도움을 받은 다섯살 된 아기와 그 가족에게는 그 한명이 세상 전부 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반드시 규모나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 작아 보이는 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열매 하나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참 소중한 일이다. 큰일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의 가치를 알아보고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닐까.

메디컬 프로파일러

저자 | 의대 심재용 교수(강남 가정의학과)



의대 심재용 교수(강남 가정의학과)가 명확한 진단명이 보이지 않는 난해한 환자를 마주했을 때 임상적 추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도서 '메디컬 프로파일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원인 불명의 통증이나 애매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대

생과 초보의사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다. 심 교수는 범죄 수사에서 프로파일러가 단서를 조합해 사건 전말을 밝혀내듯, 환자 생활 습관, 병력, 신체적·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질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메디컬 프로파일링' 기법을 강조한다. 책 속에는 원인을 알기 어려웠던 다양한 임상 사례와 함께 복잡한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통합적 추론 과정이 생생하게 수록됐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흔히 겪는 모호한 증례들을 바탕으로, 주치의의 관점에서 환자 상태를 재구성하고 논리적으로 감별 진단을 좁혀 나가는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상세히 풀어냈다.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176쪽/18,000원]

매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혈당 루틴

저자 | 의대 안철우 교수(강남 내분비내과)



의대 안철우 교수(강남 내분비내과)가 신간 '매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혈당 루틴'을 출간했다. 이번 신간 핵심 솔루션은 '혈당 브레이크 루틴'이다. 치솟은 혈당을 뒤늦게 수습하는 대신, 식사·운동·수면·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혈당 곡선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잡아주는 생활 전략이다. 혈당 브

레이크 루틴 프로그램은 3주간 단계별로 습관을 쌓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했다. ▲1주차 습득기: 취장에 휴식 제공 ▲2주차 전환기: 근육 자극을 통한 혈당 소비 ▲3주차 안정기: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리듬 완성 등 3단계로 세분화해 누구나 단계별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푸드 인플루언서 '유어니쉬(김시현)'가 감수한 33가지 저당 레시피와 7일 식단표, 주차별 루틴 카드가 부록으로 수록돼 실용성을 더했다. [쌤앤파커스/296쪽/19,000원]

간호전문대학원, 해외연자 초청 세미나 개최

연세대 간호전문대학원은 지난달 15일 간호대 진리관에서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및 BK21 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해외연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간호대학 데니스 A. 켄

트 교수(PhD, APRN)가 해외 초청 연자로 참석해 임상연구의 선도와 근거의 실무 적용: 전문간호사의 확대되는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진 세미나에는 간호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간

호학과 학생과 교수진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간호학자와 직접 교류하며 국제 간호연구 및 실무 최신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전문대학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우수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간호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근거 기반 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분척추증클리닉, 어린이 캠프 성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이분척추증 클리닉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주 외갓집체험마을에서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 2010년 시작된 세브란스 이분척추증클리닉 어린이 캠프는 같은 질환을 가진 또래들이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캠프는 ㈜일양익스프레스의

전액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3~6학년 환자 17명과 교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사회사업팀은 집단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아심리실은 '캐치 캐치 나의 감정'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의료·간호팀은 캠프 기간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건강관리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외갓집체험마을에서 멜론·오이 따기, 트랙터 타기, 인절미 떡메치기, 감자전 부치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게시판』

의대 김한상 교수(내과학)가 16일 한국엑소좀학회 KSEV 2026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세포밖소포체(EVs)를 기반으로 암 전이 기전 규명 및 암 조기진단 기술 개발 분야에서 수행해 온 연구 성과 등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대장암을 중심으로 세포밖소포체와 전이 전 틈새(Pre-metastatic Niche)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재일(소아청소년과학) 교수가 '한 마음 의학상'을 수상했다. 한마음 의학상은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국내 의과학 연구와 임상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의학상이다. 남 교수는 부인암 분야에서 기초·이행성 연구와 최첨단 최소침습 수술 기술 개발을 주도한 성과를, 신 교수는 소아신장학을 비롯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역학과 메타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쌓은 점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내년 1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의대 남은지(산부인과학)·신